

구원받아야 할 이스라엘

롬 10:1~4

사랑의 징계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구원받아야 할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고, 버림을 받아야 할 이방인은 구원을 받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아야 할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려 하지 않고, 율법과 전통과 행위 등 종교적인 기득권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고통스러워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한 사실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비판을 하는데도 그 안에 미움과 분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특이합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을 사랑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자식을 징계할 때 참으로 사랑의 징계를 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자기감정을 집어넣어 징계를 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감정을 가지고 야단을 치고 때립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호통을 치고, 야단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 안에 분노나 미움의 감정을 느낄 수 없습니다. 사랑이었습니. 사도 바울은 사랑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돌이켜 구원받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태도는 모세에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되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사정하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너무너무 분노하여 십계명을 던질 때도, 모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향한 따뜻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고 야단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탕자를 맞이하려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자 중에도 배신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상한 심정은 9장 1절에서도 볼 수 있고, 오늘 읽은 10장 1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한 심정이 9장과 10장에서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었습니다.

9장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너무나 기막힌 고통, 고난, 근심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10장에서 이런 바울의 상한 심령, 고난의 얘기가 계속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10장은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 마음의 원하는 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 10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고통에서 기도로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이나 미움이나를 판가름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보면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바울에게 이 상한 심령은 처음에는 고통이었지만, 10장으로 넘어가서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버리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한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스라엘은 매를 맞더라도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집을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마음입니다. 잘못해서 사형선고를 받아서 오늘 그 인생이 끝나는 자식을 보는 부모마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음을 맛본 자, 복음을 깨달은 자, 복음을 체험하는 자의 영적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이 복음을 알았다면, 정말 당신이 예수님을 알았다면, 사랑의 동기 때문에, 구원의 동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싶은, 그런 구원의 열정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떨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죽어가는 영혼, 심판받는 영혼, 버림받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안에 이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바울이 가졌던 자기 민족을 향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심은 있으나 구원은 없다

이방인이 구원받을수록 이스라엘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사도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눈물일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영혼, 저렇게 가면 지옥을 가는데, 저렇게 살면 멸망을 받는데,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대한 눈물, 우리 가족에 대한 목마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대한 마음... 오늘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역사를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은 잘못을 했습니다. 그 잘못의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유식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방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식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종교적으로, 행위적으로 주장할만한 것이 아무 것도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에 대한 생각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종교적인 행위와 전통과 형식으로 구원받는 것을 더 기뻐했습니다. 그래야만 자기가 이방인보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것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열심과 열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열심과 열정은 누구보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잘못된 열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열정과 열심이 많을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그것이 사도바울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열심과 진리의 관계를 봅니다. 모든 열심이 다 진리는 아닙니다. 물론 참 진리에는 언제나 열심과 열정이 있습니다.

대학원에서 박사 논문을 쓰는 사람이 몇 년을 두고 해도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씨름을 해도 실패하다가 어느 날 새벽에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해보았는데 됐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펄쩍펄쩍 뛸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흥분합니다.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충격을 받습니다. 진리를 발견했는데 그냥 있을 수 있을까요? 진리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흥분과 열정이 없다면, 그 진리는 가짜나 모조품일 것입니다.

참으로 당신이 진리를 발견했다면 반드시 그 안에 열심과 열정과 흥분과 감격이 있기 마련입니다. 차디찬 진리란 없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지성은 더 이상 지성일 수가 없으며, 뜨거운 마음이 없는 지식은 참지식이 아닙니다.

참 지식은 열정이 있습니다.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정과 열심이 있다고 그것이 곧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진리에는 열정이 있지만, 열정이 있다고 다 진리는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열심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듣기로는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 ‘김정일’이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린다고 그것이 진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열심이 있었지만, 그들은 참 진리와 지식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전통과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의 선입견 등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갔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과거에 열심히 살았던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음성인가, 하나님의 방법인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뜻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찾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받은 사람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수정해 가야 합니다.

자기 목소리가 커질 때

열심은 있었으나 지식에 이르지 못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도록 예비된 백성이었지만 막상 구원이 왔을 때 구원을 잃어버리는, 기막히고도 불행한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3절 첫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대로 정의내리고,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비극은 여기서부터 싹틔웁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 분이 하나님일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뜻일 것이다.”라고 자기의 작고 제한된 지식으로 결정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무지하면 자기 의가 나옵니다. 자기 의로움을 자꾸 주장합니다. 자기 주장이 많고 말이 많습니다. 자기가 옳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면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됩니까?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습니다. 자꾸 반항하고 비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반항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도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지적당했을 때 그들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반발하고,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고,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결과입니까 !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의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종교적으로, 전통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랑도 있고, 공의도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는 두 개가 아닙니다. 사랑 안에 공의가 있고, 공의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안에 무슨 정의가 있습니까? 인간 안에 무슨 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의’란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의’가 있지만, 인간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죄는 의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의 의는 더러운 갈레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꾸 자기의 논리, 자기의 의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정적인 착각과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지적합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이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예수를 오래 믿고, 잘 믿고 있다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아는가? 우리는 성경의 의, 하나님에 대해서 유식한가? 옛날에 들은 설교 몇 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지는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인간의 의를 내세우려 하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으려는 오만한 영적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하지 않고 율법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가면 은혜가 기득권으로 변해갑니다. 자기 의로 변합니다. 봉사를 내가 얼마나 많이 했나,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나,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나 하는 것으로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주장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받은 사람들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했더라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했더라도

도, 아무리 주님을 오래 섬겼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오히려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내놓을 만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율법으로 돌아가면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기 의를 내세웁니다. 호령하기 시작합니다. 남을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은 율법적인 인간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은혜냐, 율법이나 하는 문제입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영적인 패배는 내가 얼마나 실수를 했고, 잘못을 했고, 도덕적인 실수를 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이 은혜의 삶이냐, 아니면 율법적인 삶이냐가 승리냐 패배냐를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옳으나 그르냐, 실수를 했느냐 안했느냐를 가지고 따집니다만, 제일 무서운 영적 실수는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만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겸손이 없고, 은혜가 없고, 기도가 없는 것이 제일 무섭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제일 사용하기 쉬운 영적인 시험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는 것은 이것 하나입니다.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라 ! 네가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느냐?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감사해라 ! 기도해라 ! 감격해라 ! 순종해라 ! 겸손해라 !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이다!”

결국, 우리 신앙인은 두 가지 싸움 앞에 부딪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냐, 내 의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주장하느냐,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느냐 하는 싸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두 관계는 언제나 싸웁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의 원리에 서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요,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사랑의 원리에 서있는 사람은 얻었던 구원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자기 민족의 운명 앞에서 심장을 찢는, 그런 고통의 절규를 한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자, 여기에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어디서 발견될 수 있겠습니까?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나 선택받지 못한 모든 백성들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8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의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기에 우리를 구

원할 수 있습니다. 내 의는 더러운 걸레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곧 하나님의 의이며 나에게 그의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의의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가십시오. 의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여러분의 더러운 모든 죄가 씻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와야 합니다. 이스라엘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한국 백성이든지, 아프리카 백성이든지, 중국 백성이든지 간에 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와야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진리 앞에서 반항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전통, 율법, 할례, 조상, 약속 등이 구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는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며 살도록 기준을 주셨습니다.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에 실패한 사람들에게 용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율법으로 좌절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성막제도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이마에 달았습니다. 손목에도 달고 문설주에도 달았습니다. 누워서 천정을 보면 율법이 보이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몸에 지니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지킬 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은 좋지만 넘어집니다. 율법은 거룩하지만 좌절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영소 한 마리나 양을 잡아서 번제 단에 가서, 내 대신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율법을 지킨 자는 이 세상에 한사람도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을 하면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고 완성하시고, 마치신 그 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내 죄 때문에 양 짐승의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용서받고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으면 누구든지 즉시 용서해 주십니다.

이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목표를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 끝입니다.

따라서 4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는 바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과거의 사람이나 현재의 사람이나 미래의 사람이나, 인류의 모두가 의를 의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방인도 예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께 돌아오셔야 합니다. 저도 예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북한에 있는 백성들도 예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의 마침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그 때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인 것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풍성한 은혜를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당신의 종들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온누리신문」 제공 - <http://www.onnurinews.com/>